

인도네시아에 내리는 사랑의 단비!



임락학교 예배설교

반둥 반석교회 새벽설교

한선협 주관 신입 선교사 모임

살롬!

추운 겨울의 문턱에 평안들 하신지요?

지금 이곳은 겨울(?)의 문턱인 우기로 접어들면서 비가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처럼 우리 소명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끊임없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소식1. 인도네시아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언어 4단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임락 전체예배 때 담당 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더듬거리며 인도네시아어로 용감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원고를 보고 읽는 수준임에도 알아듣는 선생님들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저보다 아래 단계의 학생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유창하게 설교를 할 날을 꿈꾸어 봅니다.

-소식2. 한선협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3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한선협(인도네시아 한국인 선교사협회) 신입 선교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회장 김흥모 선교사님과 부회장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곳에 모인 신입 선교사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신입 선교사들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식3. 현지인들과의 교제.

현지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와 비전 그리고 삶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한국요리(떡볶기, 김밥, 미역국, 갈비찜, 짬뽕)를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살마와 이크는 제 아내가 만들어준 떡볶기가 제일 맛있다고 늘 만뽕!(따봉)을 외칩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에 계신 누님과 자녀가 식재료들을 보내주어 더욱 풍성한 음식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두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 온 우리들을 생각해 주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물건 값보다 운송료와 세금이 더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9월 중순 부터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 공부에 다들 얼마나 열심인지 가르치는 저희 부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소식4. 할레 축하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깜풍 지역의 유지로부터 손자 할레 축하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현지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했더니 작은 선물 또는 돈 봉투를 준비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난감과 소액이 든 봉투를 정성스레 준비해서 전달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선물이나 돈 봉투를 주는 것은 비슷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소식5. 꼬마루딘 가정 섬김.

임락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꼬마루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아내와 두 딸 멜라와 레아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부부를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교제 가운데 어려운 가정형편과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듣고 마음의 아픔과 쓸쓸함을 느낀 우리는 먼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소식6. 다사랑 고아원 사역.

다사랑 고아원에는 8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메가, 엘라, 찐냐, 울란, 엘식, 홀리, 까루니아, 사르띠까입니다. 각자 다른 섬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학업과 직업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등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매도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것을 위해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께서 고아원 사역을 함께 하자고 저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식7. 임락학교 졸업과 이별.

함께 공부하던 선교사님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자문제로 언어 9단계중 5단계를 끝으로 임락학교 에서의 배움을 마무리 했습니다. 언어의 배움도 아쉽고 선교사들과의 짧은 교제도 아쉽기만 합니다.





-소식7. UPI대학 BIPA 입학.

언어의 배움을 이어가기 위하여 UPI대학의 BIPA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9월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학교와 교수진 소개를 시작으로 유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칙과 규정 등을 듣고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10월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7단계 중 3단계 수준의 언어 실력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오느라 첫 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업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우리도 모르게 언어가 서서히 늘고 있음을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원하기는 속히 언어가 유창해져 좀 더 깊은 만남의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도 제 목 -

1. 현지인들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2. 언어의 지혜를 주셔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3. 동역자들과의 좋은 관계와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4.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과 두 명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5.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도록
6. 꼬마루딘 둘째 딸 레아가 속히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현재 원인모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입술과 손톱에서 출혈이 있습니다.)